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4.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 임 정 빈
사무관 : 조 규 표
전 화 : 500-1945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1년 4월 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의 중추적 역할 담당

- 금년 1/4분기 중 9개 교육청, 1,446개 학교(전체 학교(11,391)의 12.7% 수준) 참여 617억원 전자입찰 거래 -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설립된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서 운영중인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 학교급식 비리 사전차단과 공정사회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인근 여러 학교가 연대하여 곡물, 축산물, 공산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개별 학교단위로 구매하는 것 보다 대리점 마진(1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공급업체별(평균 6개 품목×3개 업체)로 관리하는 인·허가서류, 소독필증, 건강진단서, 보험가입여부 등 계약관련 서류가 없어졌다.
- 식재료 공급업체의 경우는 일단 등록이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나 등록 시까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격업체의 진입이 원천 차단되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받게 된다.
- 학교방문 횟수 감소(5회 → 1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편의(방문 → 온라인) 등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학교급식 관련 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을 준수하고 공급업체로 참여하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 납품하는 학교마다 제출했던 서류(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도 공급업체 등록 시 시스템에 한번 등록하면 여러 학교에서 공동활용

-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여 지난해 9월 시범운동을 시작으로, 2011.3월말 현재 9개 교육청 1,446개 학교가 참여하여 617억원 수준의 식재료가 이곳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은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식중독 예방시스템(식약청),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시스템, 납세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 2,202개 공급업체가 등록승인 절차를 마치고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21,732개가 거래를 위한 등록을 한 상태다.
 - * 참여 교육청(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 거래실적 : ('10.9~12월) 36억원 → ('11.1) 2 → ('11.2) 260 → ('11.3.29현재) 356
- 앞으로 식재료 시장 가격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불편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금년 중에는 2,000개 학교, 2,000억원 거래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까지는 전체 학교의 60% 수준의 참여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 * 금년 목표(1,000개 학교 참여, 1,000억원 거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후기

< '10.9~12월 시범운영기간 이용자 대상,
대한급식신문 조사 >

설문 참석(6명) : 영양교사(충남 황산초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 부산 대신중학교,
남양주 화광초등학교), 계약담당(충남 환서초등학교, 남양주 화광초등학교)

◇ 기존 구매 시스템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나요?

- 공급업체가 학교까지 오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찰이 가능
- 학교와 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형성, 공급업체심사를 대신해주어 신뢰,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행정 업무 편리
- 기존의 수의계약 시스템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적용해보니 일일이 공급업체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음
- 최저견적을 알기위해 그동안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견적을 요청한 후 인편이나 우편으로 받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애로사항이 해소

◇ 전자조달시스템의 편리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급식관련 공고서 작성이 간단하고 편리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납품 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해 학교의 행정업무가 경감
- 업체별 견적비교가 쉬워졌다. 사전에 사이버거래소에서 적격업체를 심사,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 가격조사의 경우 영양사가 실시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 식재료 가격 정보제공 서비스는 식재료 가격을 비교 및 확인할 수 있어 유용

◇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선점이 있다면?

- 2011년에는 차세대 나이스(NEIS)가 개발 완료된다고 하는데 에듀파인과의 통합 연계를 기대하고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썬 기준원 등과의 연계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각 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음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기대효과

□ 주체별 편익

< 학교 및 관리기관 >

- 식재료 계약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서 및 절차의 전산처리, 학교행정망(나이스, 에듀파인) 연계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 * 교과부 및 교육청의 자료 취합·집계기능으로 행정 지원
 - *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입찰 방식의 계약으로 투명성 확보
- 식재료 시장조사 업무 개선(학교별 조사 → 일괄조사 공동활용)
- 식약청(식중독예방),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판정), 축산물HACCP 기준원, 국세청·행자부(납세정보 조회) 정보연계

< 식재료 납품업체 >

- 학교방문 횟수 감소(현장설명, 입찰참여, 계약, 납품, 정산 ⇒ 납품,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편익(방문 → 온라인)로 시간 및 경비절감
- 별도 서류(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제출 없이 납품업체 등록승인만으로 다수 학교 입찰참여 기회
- 기존 수의계약 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학교 행정비용 절감(예상) : 118억원/년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행정비용 절감 : 64억원/연간

구분	횟수	기간(월)	학교	출장비	절감액
시장조사	4	8	10,000	20,000원	64억원

- 가공식품 공동구매 비용절감 : 54억원/연간

* 학교급식(2조7천억원) 식재료의 20% 수준(5,400억원)이 가공식품 → 가공 식품의 10%(540억원) 공동구매 → 공동구매 10%(54억원) 비용절감

□ 시스템 도입 전 · 후 비교 및 기대효과

